

Z세대 트렌드 '시작·공생'을 아시나요?

- '도파민' (독서+도파민)**
다양한 공간에서 독서하며 도파민을 충족하는 행위
- '페르소비' (페르소나+소비)**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인 페르소나를 찾기 위해 소비에 집중하는 형태
- '시작' (AI+시작)**
새로운 시작을 AI 서비스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
- '공생' (공정+생)**
공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사고방식
- '친친품' (친한 친구+플랫폼)**
SNS 대신 친구끼리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KT·'대학내일 20대연구소' 협업 젊은 세대 성향 5개 키워드 공개

'AI작', '공생', '친친품'... KT는 2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2024년 Y트렌드 콘퍼런스'에서 Z세대가 뽑은 5개 트렌드 키워드를 공개했다. 올해 2회째 열린 Y트렌드 콘퍼런스는 KT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 100명과 Z세대 트렌드 연구기관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협업해 Z세대 트렌드 키워드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행사로 젊은 세대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특히 지난해에 선정된 '갯생'은 여러 기사들에 인용되어 인기 트렌드 서적에도 소개되는 등 Z세대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이번엔 발굴한 트렌드 키워드는 '도파민', '페르소비', 'AI작', '공생', '친친품'의 5개다. 첫 번째 키워드 '도파민'은 다양한 공간에서 독서하는 것을 즐기는 Z세대의 트렌드를 담은 단어

로, 조용한 곳에서 독서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장소에서 독서하며 복합적인 재미와 경험을 찾아 도파민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페르소비'는 Z세대들이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페르소나)을 찾기 위해 소비에 집중하는 행태를 뜻한다. 페르소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이트 소비와 자신의 취향을 전하기 위한 아웃사이드 소비로 구분된다고 정리했다. 'AI작'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다양한 AI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는 트렌드에 주목하여 선정된 키워드다. 대학생들은 ChatGPT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필요한 여러 AI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다. 네 번째 키워드 '공생'은 자기 계발에 힘쓰는 '갯생', 마음 챙기기까지 고려한 '갯생'과 같은 키워드에 이어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Z세대들의 생각을 표현했다. 최근 인터넷 트렌드 밈(meme)으로 자주 등장하는 '럭키비

키'와 '사자생어'와 같은 표현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다섯 번째 키워드 '친친품'은 '친한 친구'와 '플랫폼'을 조합한 합성어로 대중에게 공개된 SNS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신 친한 친구끼리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통해 소통하는 트렌드를 짚었다. 한편 첫 행사였던 지난해에는 바쁜 일상에서도 글램핑 등 여유를 찾으며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갯생', 캠퍼스 내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남는 시간은 다양한 경험에 투자하는 '제로 칼로리 캠퍼스', 맞춤형 공간을 찾는 '왓츠인마이백' 등이 키워드로 뽑혔다. 또 인기 있는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까지 관심을 보이는 '저니'(Z-OURNEY), 금융 앱에서 미션 수행에 재미를 느끼며 재테크를 하는 '캠테크', 기존의 포트폴리오와는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볍게 나를 전시하는 Z세대의 특징인 '쇼트폴리오' 등도 꼽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쏟아 IT 정보

카카오,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

카카오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해 열리는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할 도전자를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조성한 국내 최장 4500km의 트레일 코스인 코리아둘레길을 일정 구간 나눠 걷는 캠페인이다. 코리아둘레길은 2016년 개통한 동해해파랑길을 시작으로 남해 남파랑길, 서해 서해랑길,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된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4명의 팀을 꾸려 지원할 수 있다. 연령과 성별, 평소 운동량을 고려해 선발된 최종 참가자는 코리아둘레길을 9개로 나눈 코스(1인당 약 500km)를 걷는다. 오는 10월 1일부터 2개월간 개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걷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챌린지 시작 전 도전자들의 안전한 완주를 응원하는 물품 키트를 지원하고, 완주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수료증, 한정판 메달을 증정한다. /연합뉴스

LGU+ '너겟', 대한항공과 협약

LG유플러스의 통신 요금 플랫폼 '너겟'이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통해 5G 요금제 가입자에게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너겟은 2만원대 5G 요금제 등 18종의 5G 요금제 라인업을 갖춘 선납형 요금 기반 통신 플랫폼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월 5만9000원에 5G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너겟 5G 59' 가입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기프트카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국내선 항공권 구매를 비롯해 초과 수하물, 유료 좌석, 반려동물 운송 등 부가서비스, 대한항공 브랜드 굿즈숍(e-SKYSHOP)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사는 기프트카드 사용처를 향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갤럭시A 시리즈에 AI 검색 지원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에서도 인공지능(AI) 검색 기능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35 5G, 갤럭시 A34 5G, 갤럭시 퀴텀4, 갤럭시 탭 S9 FE, 갤럭시 탭 S9 FE+ 모델에서 갤럭시 AI의 주요 기능인 서클 투 서치를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용자가 갤럭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해까지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제품에 갤럭시 AI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진짜같은 이미지 '생성형 AI' 안전장치 강화도

'텍스트가 이미지로' 구글 '이마젠3' 출시...일론 머스크 '그록2' 경쟁

원하는 이미지를 똑딱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다양해졌다.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조작되거나 딥페이크(가짜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를 막는 안전장치 등이 차별화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구글은 지난 15일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도구 최신 버전인 '이마젠3(Imagen3)'를 미국에서 출시하며 '안전'을 강조했다. 이마젠3는 지난해 12월 '이마젠2'가 출시된 지 8개월 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지난 5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이후 3개월 만에 공개했다. 구글 딥마인드측은 "텍스트 투 이미지(text-to-image) 생성에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다"며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풍부한 조명 효과를 가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과 책임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인종 편향적인 이미지로 잘못 생성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서비스를 시작한지 20일 만에 중단되는 현상이 있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AI기업인 xAI가 출시한 이미지 생성 모델 그록2(Grok-2)는 유명 인사의 합성 이미지와 폭력적인 이미지를 생성해 논란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들이 그록2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마젠3는 이미지 생성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도입됐다. 생성된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가 표시되고, 유명 인사들의 이미지는 생성되지 않는다. 멀티 모달리티 기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설명하는 등 세밀한 요구사항도 반영할 수 있으며 더 넓은 범위의 주제와 스타일을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은 이마젠3의 최신 기능들을 구글의 다양한 제품에 확대 및 적용할 계획이다. 이마젠3는 미국에서 구글의 생성 AI 플랫폼인 이마젠FX와 기업용 AI 플랫폼인 벡텍스 AI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마젠3가 출시되며 지난해 9월 오픈AI가 공개한 이미지 생성 AI '달리3', 일론 머스크의 '그록2', 미드저니의 V6 모델 등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 AI는 달리3 서비스를 유료 챗GPT 이용자에게만 제공해왔지만, 지난 15일부터 무료 사용자에게도 하루 최대 2건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선보였다. 달리3도 가짜 이미지와 저작권 등에 대응하고자 예술가의 스타일을 모방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혐오, 폭력이 담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능을 갖췄다. 반면 xAI는 이미지 생성 제한이 거의 없어 가짜 이미지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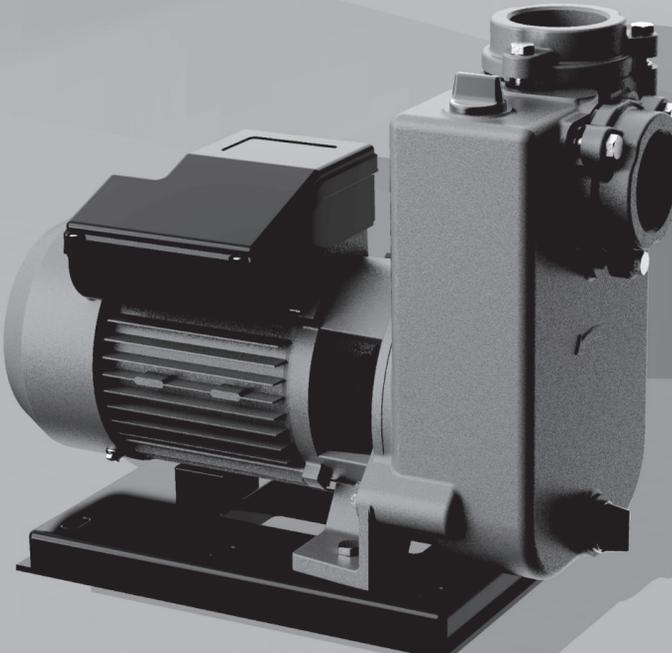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지난해 열린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야밤에 즐기는 과학관 썸파티'

국립광주과학관, 23일 '술' 주제 성인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오는 23일 '술(酒)'을 주제로 성인들을 위한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야밤에 즐기는 과학관 썸파티' 행사를 개최한다. 8회차를 맞이하는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은 성인들이 과학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케이터링을 시작으로 천체투영관에서 '주류의 과학'을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이 진행되며 다양한 실물화석과 생동감 있는 공룡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 관람과 S.O.S (Science on a Sphere)를 통해 2만km 상공에서

바라본 지구를 알아보는 시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칵테일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외에도 베스트 드레서를 찾아라, 포토존, 광없는 뽑기체험 등 짝퉁 이벤트와 오비맥주의 후원 등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된다. 과학문화실 한수민 연구원은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기 위해 마련한 과학문화 행사에 참여자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21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